

4월27일, 중국 상해 환경시장 진출
상해 국제환경보호전 한국관 운영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는 환경부 및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중국 상해 국제환경보호전(4. 27 ~ 29일)에 한국관 자리를 마련해 참가한다. 중국 상해 국제환경보호전은 상해시 정부의 대대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전시회로 참관객, 전문바이어, 교역액 등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환경보전협회는 양국의 환경산업 기술과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우리의 환경기술을 양국 시장에 널리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부의 환경정책 및 국내 환경시장 현황 및 기술,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환경기술전시회(ENVEK)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환경산업체의 적극적인 판로개척과 한국환경산업의 수출마케팅 전략 강화의 목적으로 한국측 참관단도 구성해 파견할 예정이다.

* 참관단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envex.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 생태 · 문화탐방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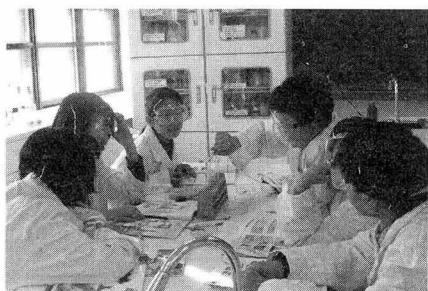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균)과 환경보전협회는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 까지 한강유역 일

선 교사 및 한강수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한강유역 생태 · 문화탐방을 실시하였다.

남 ·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부터 강화도 하류 까지의 자연생태계 및 문화유적 탐방을 통하여 한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새탐조 등을 통하여 자연생태에서 차지하는 한강의 가치를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남 · 북한강유역의 생태 · 문화탐방과는 다르게 하류까지 확대하여 한강의 현주소를 체험함으로써 한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유발과 더불어 환경보전운동으로 승화시키는 행사가 되었다.

「제3기 푸른하늘 지킴이」 운영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조기 환경교육을 통하여 대기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친환경적 생활양식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선우영준)과 환경보전협회(회장 박용성)는 '06년 6월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 「제3기 푸른하늘 지킴이」를 구성 ·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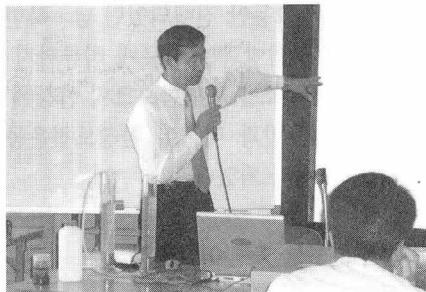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내 초등 학생(4~6학년) 및 중학생으로 구성(58개교, 1,160명)된 「푸른하늘 지킴이」는 Passive Sampler(대기오염 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포집 후 비색계(분석기)를 통해 월1회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며, 참여학교 주변 시정거리 관측을 통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체험환경교육 등

협회 동정

을 수행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운영비와 장관상 포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저감기술 및 방지시설 운영 관리 실무교육 실시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 서울본회에서는 지난 2월 26일 ~ 28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중 생물학적 공법으로 폐하수를 처리하는 수질분야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화된 기술과 경제적인 운영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제2기 환경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실무교육은 이호환경컨설팅 이문호 대표 이사가 「하폐수처리장 운전시 활성슬러지이상현상의 종류와 진단」, 「활성슬러지 진단방법」, 「활성슬러지 진단의 실험」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으며, 환경부 담당자가 개정된 환경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국내·외 우수사례 및 현장 적용사례 연구 및 토의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환경기술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 제2기 실무교육은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있을 예정이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꾸준한 인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중심의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친화적 가치관 및 생활태도를 심어주고자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에서는 2004년부터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2010년까지 환경교육에 대한 예산을 늘려나가는 등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교육대상과 기회를 확대하고자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울산·경남지역에 1대 증차하였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및 경남권에 101개학교, 32개 기관, 13,643명의 어린이들을 교육하였으며, 관찰, 체험, 만들기, 퀴즈, 실험실습 등 좋은 교육 내용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인기가 높아 금년 교육일정도 연말까지 예약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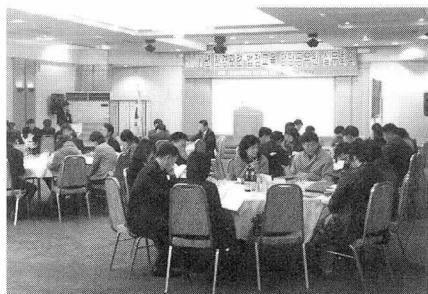
환경기술 및 행정실무 순회교육 실시



환경보전협회 부산광역시지회(지회장 정병호)는 지난 1월 9일부터 29일까지 찾아가는 회원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지역별 환경기술지원사업 순회교육(6회)을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공동으로 4개지역(녹산국가산업단지, 사상공업전용 지역,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 기장군청)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순회교육은 회원사 및 환경배출업체에서 환경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점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환경관련 법정교육 담당공무원 실무회의 및 강사간담회 개최



환경보전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이희태)에서는 지난 2월 23일 경산상대온천관광호텔 별관2층 무궁화홀에서 대구광역시(8개 구,군 포함), 경상북도(23개 시,군 포함), 대구지방환경청 등 담당공무원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7년도 환경관련 법정교육 담당공무원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이희태 지회장은 각종 국제 환경협약을 통한 선진국의 압박, 기업의 환경관리와 생산 공정의 밀접한 관계,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관리 현실을 언급하며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상호간의 상생, 법정교육 담당공무원의 역할과 환경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난 2월 27일에는 2007년도 환경관련 법정교육 강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각 권역별 출장교육 실시 및 법정교육의 효율적인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가 이루어져,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007년도 달라지는 환경제도·시책』 등 특별교육 실시

환경보전협회경기도지회(지회장 우봉제)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사업과 기업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체의 환경담당 임·직원 및 환경관련업체의 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30일과 2월 6일 2회에 걸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2007년도 달라지는 환경제도 및 환경보전시책 해설』『수도권 대기총량제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시책 해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현황 및 사업과 민원업무 해설』에 대한 주제로 상세한 설명과 실무적인 강의로 250여명의 참석자에게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환경시책 및 배출업체 지도·점검방향, 환경개선자금 융자운용요강 해설 설명회 개최



환경보전협회충북지회(지회장 이태호)에서는 지난 2월 28일 관내 배출업체 환경담당자 및 관련공무원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환경시책 및 배출업체 지도·점검방향과 환경개선자금 융자운용요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년 1월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및 환경오염사고 대처방안과 2007년도 주요 환경시책 및 배출업체 지도·점검방향,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의 금년도 환경개선자금 융자운용요강 해설등을 통해 배출업체의 효율적인 환경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하였다.